

TRANS- HUMANITIES

Title : 중역(重譯)과 근대의 모험: 횡단과 언어적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에 관하여
**Double-Translation and the Adventure of Modernity:
On Crossing and Linguistic Transformation**

Author(s) : 조재룡 (CHO Jaeryoung)

Source : *Trans-Humanities*, Vol. 4 No. 2 (2011), pp. 5-36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c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A WOMANS UNIVERSITY

중역(重譯)과 근대의 모험¹⁾

- 횡단과 언어적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에 관하여

조재룡

“한국: 일본을 참조할 것”
『Grand Larousse』, 1930.

1. 중역의 딜레마 : 허구로 귀착되는 논리들

메이지 전후, 일본어로 수용된 서구의 근대(정복자의 근대, 백인의 근대)와 이후 개화기에 조선으로 흘러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향간에서 말해온 낙후하고 미개한, ‘이식’되었다는 딱지가 붙어버린 수동적인 근대(피지배자의 근대 = 이식된 근대 = 식민지 조선의 근대)라는 이분법적 도식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일본에서 애면글면 한자를 조합하거나 제 지식을 동원하여 주체적으로 수용한 이후, 동양에 정착된, 백인

조재룡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 1) 중역이 포괄하고 있는 광범위한 개념적 자장과 그 활동성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9일 한국번역비평학회와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봄철 학술대회에서 「중역(重譯)의 인식론 - 그 모든 중역들의 중역과 근대 한국어」라는 제목 하에 상세히 다루어 본 바 있다. 이 글은 『아세아 연구』에서 2011년 9월 30일 발간될 상기 원고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중역의 개념사적인 전개와 인식론 전반에 관해서는 학술대회 자료집을 참조할 것.

www.kci.go.kr

정복자의 하사품이 아무런 개입도, 주관적인 변형이나 이를 위한 노력도 없이 조선인의 품에 당도하였다는 논리는 수많은 전제를 바탕으로 가지런히 배열해 놓은 도미노 행렬의 마지막 조각이다. 서구에서 건너온 일본의 산물에 포섭되고 소유당한 조선의 지식과 문학, 사상과 역사의 의존성은 ‘중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서로가 단단히 얽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때 중역은 수동적 상태를 조장하고 실현한, 그저 타성에 젖어 진행된 기계적인 방법이자 그 주범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의 근대 지식은 이식되었어도 중역이라는 마녀가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 정도면, 알라바이는 확보된 셈이다. 따라서 물음은 비교적 간단하다.

중역은 전통적 정서의 소외를 야기하며, 부메랑 효과처럼 종속의 사슬을 낳거나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말, 즉 이식되거나 뿌리 채 정복되었다는 이미지를 뺏어내면서 조선에서 근대라는 허명과 허울을 조장했을 뿐인가? 중역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참칭해 들어오는 언어의 오염과 근대의 이식이라는 통념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받아 물리칠 것인가? 중역은 ‘언어-문화’의 ‘자기화’(우리 것으로 궁리한다는 점에서 동질화 [homogénéisation])와 ‘타자화’(낯선 것을 낯선 것으로 대한다는 점에서 이질화[hétérogénéisation]) 작업을 동시에 가동하여 일방적인 침투에 반박하면서, 추론을 도모하고, 이어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며 제 언어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나간 일련의 과정이나 그 전반의 번역적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중역과 중역이 낳은 문학작품은 문학 장르의 변화에서 근대 한국어의 고안에 이르기까지, 변형과 굴절, 에크리튀르²⁾

2) 여기서 ‘국(가)어’ 대신에 사용한 ‘에크리튀르’(écriture)라는 용어에는 근대어, 근대 조선어, 근대 우리말, 근대 조선어의 통사구조, 근대 조선어의 표기 방식, 근대 한국어라고 말할 때의 모호함을 모두 포괄되어 있다. 유길준의 국한문혼용이 선포된 1895년 이후, 대부분 중역을 통해 번역되고 소개된 작품들과 번역의 과정에서 실천되었으며,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쓰기의 실천 과정에서 한창 형성되는 중에 있었던, 제국 하에 일본어와 한문, 중국어와 서구어(일본어를 경유한)와의 관계 속에서 재배치되고, 형성되고, 소멸되고, 이동하고, 이동되고, 정착되고, 부정되고, 지워지고, 덧붙여진 언어적 실천과 “구어(口語)상황과 종래의 문자

의 재배치와 그 부침, 충돌과 조절 속에서 지배와 피지배, 이식과 창조라는 이분법을 타파할 출구와 그 가능성을 확보해 나간 것은 아닌가?) 그림에도 중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이 모든 물음의 마지막 지점에는, 오늘날을 포함하여 한국의 근대적 지식이 식민 종속적이라는 결론, 즉 어떤 패배의식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킴킴한 터널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 문제는 오로지 중역이 허울이라고 여기는 데 있는 것이지, 중역을 매개로 해 당도한 지식의 성격과 파장, 그것의 특수성과 효과는 아니었던 것이다. 중역을 통한 단순하고 기계적인 이식의 결과일 뿐인 우리 근대 문학, 우리의 근대적 지식과 언어는 종속적인 것이며, 이러한 자명함을 주장하는 허위의 대답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여전히 딜레마 처럼 기능하면서, 중역에게 죄를 묻거나 책임을 돌려놓는다. 그 누가 중역으로부터 콤플렉스나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행위의 가치를, 아니 그 효과와 파장에 대해, 그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가?

그것이 번역이자 번역 행위인 이상, 중역은 ‘언어-문화’의 중층적 결정성(혼종, 재배치, 착종, 결국 고안, 창안으로 이어지는)을 확인해가며 끊임없이 ‘읽기-쓰기’ / ‘다시 읽기-다시쓰기’의 실천을 재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근대와 네이션을 회구했던, 구어(l'oral)와 문어(l'écrit)의 일치

질서, 교양을 절충한 결과”(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표상들』 147)이기도 한, 그림에도 어떤 완성을 지향하며 진행 중에 있었던, 쓴다는 실천적 행위와 다시-쓰기 전반을 통칭한다. 따라서 에크리튀르는 ‘글쓰기’로 번역될 수 없는 개념이다. 한국문학에서 ‘글쓰기’가 낭만주의적 전통과의 연장선상에서 ‘창조’나 작가의 산물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글에서 사용하는 에크리튀르는 바르트나 푸코의 그것, 즉 예술작품을 창조적 행위나 천재의 산물로 보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추구하면서 ‘저자’ 개념을 부정하고자 내세운 “자동사적인 행위”(acte intransitif)(R. Barthes 21-31)이자 “언어행위만이 영향을 끼치고 “수행하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는”(62) 글의 실천을 말한다.

- 3) 중역의 알리바이는 크게 보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시기의 급박성, 둘째, 계몽의 필요성, 셋째, 약자의 논리이다. 동아시아 전반의 번역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중역의 이 세 가지 조건에 관해서는 앞의 줄고, 「중역(重譯)의 인식론 - 그 모든 중역들의 중역과 근대 한국어」에서 다룬 바 있다.

향해 기약 없는 일보를 디뎠던 행위임에 분명하다. 중역은 오히려 번역의 대상이 된 문화와 글들이 번역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첨가되고 누락되는 행위, 즉 “유동성의 위상학 내에서 작동하는 가변적 이동체 (mutable mobile)”(크로닌 67)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지식이 언어의 실천과 그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모든 지식에 개입하는 언어적 실천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자,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 ‘지식-문화-언어’를 생산하는 주체는 ‘이중언어’(bilinguisme)나 코드전환(transcodage)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횡단’(trans 혹은 cross)을 준비하고 도모하는 주체, 즉 필연적으로 ‘지식-문화-언어’를 재배치하는 주체이며, 물론 재배치와 탈중심(décentrement)의 대상은 진문(眞文), 일본어, 서양의 근대 지식이었다. 이 세 가지 거점을 조선으로 이동시킨 탈중심의 주체는, 한시적이건 그렇지 않건, 결국 중역 안에서, 중역에 의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역은 바로 이와 같은 문체들 속에서, 즉 아무리 배겼다고 해도, **배긴 것은 그것이 언어 횡단적 실천인 이상 배긴 것 이상의 무엇을 남긴다**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대(문학, 지식)의 주체는 중역의 주체, 즉 중역을 수행한 개인들의 집합체이면서 권력이 개입된 자리도 만들어낸 주체였던 까닭⁴⁾에 지식의 일차적 생산(서양)과 후차적 수용(일본)의 맥락에서 이탈하는 주체, 즉 언어적 실천을 통해 이것을 새로운 의미로 고정시키고, 재생산하고자 했던, 즉 이타성(alterité)을 통해 제 정체성(identité)의 역사를 만들어나갔던 언어 실천적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다시-쓰기’는 그것이 중심이탈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탈’이나

4) 왜냐하면 식민지가 가속될수록, 일본어를 구사하는 능력 자체가 특권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교본의 대부분이 일본어로 집필되었고, 일본어를 직접 읽는 독자층이 늘어갈수록 번역이나 번역가들은 타당성과 입지를 상실해갔다는 사실도 여기에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횡단’과 결부된 언어적 실천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다시-쓰기의 ‘다시’가 단순한 반복을 넘어서, 주관적이고 부차적인 해석을 의미한다면, 다시-쓰기의 실천은 다시-읽기의 소산이자, 원전에 대한 비판이며, 또한 비판의 가능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대부분의 조선 문학인들이 실천하였던 중역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다.

2. 자명한 중역, 그러나 배킨 것은 그저 배킨 것인가?

갑오개혁 전후로 1920년대 말까지, 아니 해외문학과의 활동이 전개되었던 30년대까지의 번역 작품들이 일본어 번역을 ‘이중으로’ 취해왔거나, 영어의 축약본을 중역한 일본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은 ‘삼중역’이 대다수였다는 논의는 오늘날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잠정적이건, 그렇지 않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중역이다. 최근의 한 논자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거의) 생략하다시피 하여, 제 말의 껍질 안에 타자의 것을 구겨 넣었는지 포개어 놓았는지, 좀처럼 분간이 어려운 저서의 서문에서 “이러한 중역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어두운 중세의 터널을 지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김옥동 9)⁵⁾이라며, 때 늦은 진단을 과시하

5) 이 책에 대한 내 생각은 저자가 함께 출간한 『근대의 세 번역가 - 서재필, 최남선, 김억』(소명출판, 2010)과 묶어 차후에 논하기로 한다. 선행연구의 검토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그토록 풍부한 자료와 귀한 정보, 희귀한 도판과 개화기의 원문을 소화해낸 저자의 역량은 실로 경이롭다 못해 경탄을 자아낼 만하다. 따라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바로 이런 의문이다. 저서에서 인용되고 논증에 사용된 자료들은 거개가, 김병철의 작업을 제외하면(그것도 인용이 아니라, 언급 이후에 자기의 공으로 돌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제시된, 그러면서도 김병철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해 한 번 더 놀라게 만드는), 원문, 당시에 출간된 영인본과 문서, 희귀 사진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기도 한다.

중역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베꼈다는 논리, 예를 들어 그대로 일본에서 수용된 근대를 이식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중역의 번역가는 주체적인 화자가 아니라, 그저 “환승(換乘)하는 자”(나오키 69)라는 논리, 둘째, 중역을 포함해 번역이, 언어 코드의 전환이기 때문에, 중역을 통해 투명한 전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개화기 번역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리하여 이구동성으로 수렴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중역에 관한 논의나 그 입장들은 그러나 그 속내를 따져보면, 실상 같은 입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는 목소리, 즉 동구이성에 가깝다. 이들의 목소리는 대략 세 가지 양상으로 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말하거나,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말하려 시도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다른 파장(파국)을 예고하거나, 동일한 것을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중역을 자명한 사실로 고정시켜 놓고서 전개되는 이 세 가지 목소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전제 하에 제 논리의 정합성을 모색해나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인식구조는 또 무엇일까? 이를 살피기 위해서 다시 변안소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변안의 특이성”에 대해 “서양의 원작에 대한 일본어 변안을 다시 변안한 이른 바 중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 변안소설은 주로 서양소설의 원작을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淚香)가 변안한 일본어 소설을 ‘완역’과 ‘직역’의 방식으로 재변안했다”고 내린 결론이 아무런 주장도 펼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여기서 문제는 “완역”과 “직역”, 특히 “직역”=“중역”이라는 도식에 있다. 왜냐하면 결국 “직역”은 “원작과 “동일한 형체”를 보유하는 형식을 견지하여 “동일성”을 유

가능했을까? 이 난해하고도 방대한 자료를 저자가 모조리 읽고 소화해냈으며,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내었다 말인가?

지하는 전략”⁶⁾으로 인식되어 결론적으로 중역을 직역과 동일한 행위로 파악하는 논리적 수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중역이 무언가를 그대로 옮겨온다는 이러한 전제는 그러나 과연 타당하기는 한 것인가? 이러한 동일성의 이식이라는 맥락에서 중역이 야기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며, 중역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 걸까?

“서양 원작의 “동일성”을 탈피한 “오리지널리티 있는 번안”을 실현한 일본어 번안의 “동일성”이 보전되는 번역의 방식”이 바로 우리 문학에서 중역이며, 경우에 따라, 즉 “극단적으로는 중역의 “오리지널리티”는 보유될 수 없는 형식”, 즉 **일본어 번안에 비해 필연적으로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는 무엇**처럼 간주된다.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의 중역은 “내포와 외연의 복잡한 관계에서 원본과 복제를 사유하는 계기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전반의 논의가 “중역=직역”이라는 논리 안에서 맴돌며 제 귀결점을 모색할 뿐이라면, 이때의 결론은 비교적 자명해진다. 즉, 그대로 들여왔으며, 동일성으로 그 변폭이 축소된 중역은 여기서 직역의, 고정되고 불변적이며, 타의적이기도 한 이식으로 대치되어 나타나고 마는 것이다. 예컨대, 중역은 수단이며 도구였던 것이고, 이 수단과 도구는 그대로 옮겨 나르는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수단과 도구를 통해 옮겨온 곳에서 그것을 받아내려 기다리고 있는 수용의 주체, 즉 근대 한국어가 제 체계를 모색해 나가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가로지르며 횡단 중인 언어, 다시 말해, 한창 고안되고 있는 과정의 언어로서 말과 글, 문법과 비문, 띄어쓰기와 방점, 접미사와 접속사, 표기의 확정, 어휘의 다의성이 진문의 탈중심화를 가속시키며 제 ‘문’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렇게 “한문맥(漢文脈)과 그것이 포괄하는 구문맥(歐文脈)의 존재가 상호불가분의 것으로서 소위 國文(脈/學)이라는 것을 형성”(황호덕, 『한

6) 권정희, 「식민지 조선의 번역/번안의 위치 - 1910년대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28권, 2010 참조.

국근대문학연구』 109) 중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오리지널리티 있는 번안”인 일본어 번역본의 “동일성”을 곧이곧대로 수용한다는 논리는 완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겠는가? (중역을 망라하여) **번역에서 고정되어 있는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역이 필연의 산물임을 주장하기 이전에, 번역과 마찬가지로 중역 역시 번역가의 주관적인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상기해야만 한다. 이 자명한 사실은 중역에 접근할 단 하나의 가능성으로 에크리튀르의 실천이라는 문제들을 설정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역에 대한 논의가 중역이 구체적으로 행한 일, 즉 에크리튀르의 실천적 측면에 맞추어져 전개되는 경우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상협은 구로이와의 『捨小丹』를 번역본으로 삼아 브라튼의 『Diavola』를 중역한 셈”(권용선 140)이라는 지적은 그리하여 번역된 이상협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양의 인정과 풍속”은 일단 ‘번역’이라는 사건을 통해 전달된 것이었지만, 또한 본격적인 ‘소설’로 가는 도중에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다는 식의, 그것이 야기한 효과에 초점을 둔 성급한 결론으로 치닫고, 이 일차적인 결론은 “그것은 한편으로는 쓰는 자에게나 읽는 자에게나 ‘소설’의 코드를 익혀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같은 글, 157면)라는 최종 결론을 향해 성급하게 마무리 될 뿐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느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데, 그 까닭은 규명해야할 것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중역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역을 통해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은폐되거나, 논의의 이전 과정에서 강제로 매몰되거나, 잊혀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나타날 뿐이다.** 우리 소설의 고유한 코드를 발견했다는 데, 중역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그러나 독서와 연관되어 있는 이 “소설”의 코드를 익혀나가는 과정”은 중역을 통한 에크리튀르의 저 실천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물론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라고 해서, 통념이 되어버린 중역의 절차, 즉 중역-지역-베끼기-이식-수용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것이

라는 생각하는 것은 몹시 난망한 일이다.

우리의 경우 근대의 형성은 서구문명과 문화를 번역을 통해 활발히 수용한 일본으로부터의 근대화 시도와 이의 좌절인 식민화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민지배와 탈식민지화라는 과정 속에서 번역이라는 계기는 근대적인 사상과 문화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번역이 비록 서구 제국이나 일본제국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라는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식민지 또는 후진국에서 번역은 불가피한 문화수용의 과정이다(김재현 309).

전폭적인 수공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위의 지적에 중역에 대한 편견이 제 모습을 감추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번역이 비록 서구 제국이나 일본제국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라는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라는 검양과 타협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해를 강제하며 그냥 지나치는 조건절에 놓여 있다. 중역의 문제는 이렇게 쉽사리 결론으로 치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번역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대치하는, 즉 언어코드 의 전환이 될 수 없다는 사유는 중역을 이해하기 위해, 여전히 유용한 것이다. 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한 텍스트의 어휘-구문-문장을 다른 텍스트의 어휘-구문-문장으로, 한 텍스트의 에크리튀르를 다른 텍스트의 에크리튀르로 '재현'하는 일, 즉 '주관적으로 다시 제시하는 작업이 번역 이라면, 중역이라고 해도 그러한 것을 모색하지 않거나 그 과정과 절차가 생략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랑그(langue)에서 랑그로 전환하는 번역이 기실 가능하지 않다는, 그리하여 공허한 담론일 뿐이며 과학의 자명성에 눈이 먼 일부 번역학 연구자들의 주장이자, 그러나 폐기처분되어야 할 낡은 인식이라면, 오늘날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 관점이 여전히 통용되고 버젓이 확보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중역과 중역 주위로 포개진 개념들이다. 중역은 직역, 동일성, 이식이라는 수식에 이끌려, 사

유의 변곡을 굳게 닫아버리고, 주관성이 극단적으로 매몰된 지점으로 훌쩍 이동하여, 무비관적인 이식과 유입, 전통과의 대척점을 형성하는 대명사처럼, 그리하여 직·간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양보절을 환영하는 일시적 수사로 전락할 뿐이다.

당연한 지적이 되겠지만, 중역은 번역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분절하는 작업에서 언어의 표상과 재현, 따지고 보면 창조와도 그리 다른 것만도 아닌, 번역가의 주관성이 적재되는 일련의 과정을 상정하고 상정해야만 하는 번역의 방법이자 실천이다. 오히려 두 번 무개를 든다는 제 어원에 충실한 것이 중역이며, 이렇게 보면 번역보다 훨씬 주관적인 언어활동이 중역이기도 하다. 근대 한국어가 번역과정에서 ‘발명’(고안)되었다고 흔히 말할 때, 함께 올라오는 번역이라는 단어의 중의적인 뉘앙스를 제거해놓으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도 저도 아니라, 십중팔구 중역인 것이다. 최남선이 중역하여 제 잡지에 연차적으로 소개했던 수많은 작품들 중, 그 어떤 구절을 떼어놓고 살핀들 그대로 베껴 놓았다는 논리를 정당화해줄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倏忽하게 그날스밤을 面하여 現出하였다가 또 倏忽하게
그날스밤을 隱沒하니라.

復位時代의 靜穩과 閒暇의 밋해서 쉬지않고 發達生長한 社會問題
研究者란것은 대개 웃더한 種類, 웃더한 階級에 붓치난 者이뇨?

一千七百八十九년에 잔톤·로베쓰피에루 등이 企劃한 革命은 貴族의 橫暴를 憎怨하여 생긴 侵略의 革命이라, 그런故로 그들은 取하여 代身하고, 代身하여 專恣히하였다. 7)

7) 최남선, 『少年』, 제 19호, 1910, 50, 53, 59; 줄고, 「번역의 유명이 배회하고

‘구두점’ 부호의 체계적인 사용(띄어쓰기 역시 구두점이다)을 바탕으로 일본식 한자어, 그리고 일본식의 그것에서 왔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조사와 종결어미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조선식 구어와 혼합해 놓은 최남선의 번역(중역)문에는 ‘革命’이나 ‘近代’, ‘社會’나 ‘體系’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에 ‘自誓’, ‘倏忽’, ‘隱沒’, ‘靜穩’, ‘閒暇’, ‘憎怨’, ‘專恣’, ‘兼職’, ‘牢確’, ‘不振’, ‘紛擾’, ‘說諭’ 등의, 통상에 사용하던 한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사법과 닮은꼴일 이 ‘문’(文)의 구조 전반에 녹아있다.

최남선의 문장, 즉 중역한 그 문장의 가치를 조명해야한다는 관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관 단행본 번역소설은 일본어로부터 거리를 두는 한편 표기체계에 있어 한자어가 아닌 한글 어휘와 통사구조로의 모색을 통해 일본어/한자어의 이중적 구속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했다”는 지적이나 “1900년대 『썰니버유랍기』의 단행본에서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번역소설의 문체 특징이기도 하다”(권두언 114)는 언급은 사실상 “한자로 쓴다고 해서 개념이 명징해진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이나,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우리말로 사유하기를 강조하는 입장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한자어를 통해 우리가 한국의 근대의 두 구성요소인 한문맥(漢文脈)과 구문맥(歐文脈)을 동시에 사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일견 당연할 수도 있는 요청”(황호덕, 『한국근대문학연구』 108)에 부합하는 관점이기도 해, 중역을 연구할 포괄적인 사유를 제공해 준다.⁸⁾

있다. 『문학과사회』 봄호 (2010)에서 인용되었던 부분.

- 8)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권두언의 지적뿐만 아니라, 개화기 연구와 맞물려서나 혹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곤 하는 “문체”라는 개념의 위험성이다. ‘에크리튀르’의 실천과 “문체”의 사용은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문체(style)가 글과 말의 문체 전반을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로 치부하는 개념인데 비해, 에크리튀르는 공동체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산물, 즉 글쓰는 주체와 결부된 개념이다. 이들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 시대의 글쓰기가 공동체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실천이라는 사실은 재차 강조되어야 하는데, 문체라는 개념이 자칫 언어와 결부된 문체 전반을 개인적인 선택의 문체로 축소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롤랑 바르트(R. Barthes)나 앙리 메쇼닉(H. Meschonnic)

여기서 중역이 ‘에크리튀르’, 즉 우리말의 ‘서기체계’를 만들어나간 동력이라고 할 때, 중역은 그대로 베껴 이식을 해대는 주범이 아니라, 주관성의 당당한 발현이 된다. 주관이 개입된 번역가 최남선의 글쓰기, 즉 그의 중역과 그 행위를 조망하는 작금의 관점들⁹⁾은 최남선을 포함하여 기존에 중역을 평가해온 ‘중역=직역=이식’이라는 도식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이 도식의 한계에 대한 자각을 환기하는 동시에, 중역과 중역에서

같은 프랑스의 학자들이 1960년대에 거듭 지적했던 것도 바로 문체에서 에크리튀르의 문체로 문학에 관한 물음 전반을 전환해만 하는 근본적인 필요성이었다는 것을 새삼 언급해준다. 아무리 개인이라고 해도, 그 안에 공동체적인 무엇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국 근대문학에서 글쓰기의 실천과 결부되어 중역을 언급할 때, 중역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발현이라 여기고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더구나 한자의 섞임 정도를 감안하여 설정된 다양한 ‘~체들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해도, 오로지 한자의 섞임 정도에 따라 문장의 특징이 정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 9) “重譯에 관한 연구는 서양 原典과 일본어 번역본 그리고 중역된 조선어 번역물의 비교 검토되었다. 일반적으로 번역 연구는 서구의 원전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고, 이를 어떻게 소개했으며(완역, 초역 번안 등), 일본어 번역과 조선어 중역 사이의 차이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양사상의 수용과 관련해서 번역물 입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여러 종류의 일본어 번역물을 침착해서 번역하기도 했다. 또한 서양 원전을 번역했는지 아니면 일본어를 중역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리고 번역·중역의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론은 일본 사상사의 ‘모방’ 혹은 ‘중속됨’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상사의 영역에서 무엇을 어떤 의도로 번역(혹은 중역)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주인언어’ 사회의 내적 요구를 규명하는 접근 방안이 요구된다”(류시현 52)는 언급이나 “초기 최남선의 일관된 문체이식은 ‘국민의 형성’에 있었던 바, 절충적인 방식의 매체 언어를 고안하여 미디어에 의한 국민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이는 반식민지 상황에서, 비정치적 수단으로 정치적 행위를 대신한 것이다. 그의 문체 실험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것이었고, 이후 미디어 문체의 기본 모형이 되었다. 이처럼 최남선은 『독립신문』과 같은 과격한 언어 통일을 지양하고 사회의 다양한 언어 질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근대어의 형식을 추진했다. 최남선의 시도는 말하자면 조선의 현실에 근거한 ‘국민언어’의 창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한기형 364)는 지적처럼, 최남선의 경우에만 국한시켜 놓아도, 중역 연구의 필요성과 중역에 접근해야 하는 관점이 어떠한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기형이 말한 “미디어 문체” 역시 중역과 결부된 결과이자, 최남선이 일구어내었다는 “근대어의 형식” 역시 중역을 통해 추진된 것이며, 여기서 “무엇을 어떤 의도로 번역(혹은 중역)했는가”(367)를 살피는 작업이 여전히 요청되는 것은 류시현이 “일본어 번역과 조선어 중역 사이의 차이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지점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올려나오는 문제들을 단박에 해소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놓는다. 중역은 결국 기계적인 베낌이 아니라, 주관을 적재해 기술해나간 ‘역술’과 동의어를 이룬다는 생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최남선의 『자조론』은 ‘영어’에서 ‘일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저본으로 하여 이것을 ‘국한문 혼용의 조선어’로 다시 번역한 ‘중역(重譯)’된 텍스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번역 방식이 더 들어가는데, 번역가의 언술이 번역문에 개입되어 있다. … 이것은 이 시기 번역의 특징적인 양상의 하나로, ‘역술(譯述)’이라고 표현되는데, 역자의 주석이나 서문처럼 번역된 본문 또는 원 저자의 발언과 구획되는 지면이 아니라, 번역된 본문에 역자의 발언이 그대로 개입되는 것을 말한다(김남이의 240).

결국 중역은 보다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용한 팔레트 위의 물감 과도 같은 것이며, 이렇게 색조의 다양함과 필치의 힘을 담은 그림 한 장이 바로 최남선이라는 번역가(중역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조론(自助論)』을 비롯한 최남선의 작품들은 중역의 산물인면서, 묘하게도 번역을 벗어나는 지점을 바라본다. 그것은 비단 원본을 재배치할 뿐만 아니라, 원본이라는 속성도 지니고 있는, 아니 중역은 이 창조적 속성을 가동시키는 일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중역이 약어인 ‘이중번역(二重翻譯)’에서 ‘이중’은 ‘두 겹’과 ‘중복(重複)’을 함유하는, 즉 두 번 거듭되거나 겹쳐진다는, 말하자면, 번역하는 데 무게가 두 번 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거듭 번역하다’나 ‘겹쳐 번역하다’는 기준에 번역된 말이나 글을 재차 다른 말이나 글로 번역하거나 이동시킨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역은 바로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주관적인) 무게를 둔다는 제 용어 본연의 의미를 실현해나간다. 기계적인 직역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술의

주체가 바로 중역이었다는 점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창출되었거나 창출하는 작업이 중역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렇게 중역을 바라보아야 하는 새로운 관점들을 산출해낼 근거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남겨진 문제 역시 자명해 보인다. 중역이 야기하는 문제는 결국 “무엇을 ‘선택’했는가”의 문제, 선택된 텍스트를 소개한 방식을 단순히 평가하는 차원보다 훨씬 먼 곳을 향해 내뿜기 때문이다. 반복하자면, 에크리튀르의 재배치의 관점에서 무엇을 옮겨왔으며, 어떻게 옮겨왔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말의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근대 한국어가 어떤 실험을 통해 제 꼴을 모색해 나갔는지 그 면면을 살피는 작업이 그리하여 여전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예컨대, 참조했다는 바로 그 텍스트, 중역의 대상이 된 바로 그 텍스트, 중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개념을 결부시키면서, 부정이나 긍정의 틀 안에 고정시켜 놓은 후, 빠져나왔다고 우리가 믿곤 하는, 그리하여 상세한 비교작업을 모면 받아왔던 바로 그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변형시켰는지, 무엇을 삭제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비교 연구의 주체이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과 이데올로기(계몽의 주체이자 번역가)의 개입 전반, 새로운 장르의 탄생과 정착 과정 전반에 중역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필연성을 요구할 만한 작업인 것이다. 중역은 이렇게 한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령이며, 다시 되돌아오는 망령,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보태는 환영이기도 한 것이다. 류시현의 문제의식이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서구 원전을 대부분 일본어 번역본을 ‘중역’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어 ‘중역’은 서양의 새로운 개념어에 대응하는 造語를 만들지 않고 일본어 번역본에서 채용했다. 그렇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이글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류시현 57)

중역을 연구해야하는 출발점은 바로 여기일 것이다. 주로 개념어 역할

www.kci.go.kr

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되어 온 한자는 그것이 문장으로 구성되어 사상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선보인 것이 아니라면, 동아시아의 공통된 이해와 수용, 그러나 서로 같을 리가 없는 문맥 속에서 제 의미를 부여받았을 것이며, 때문에 “서양의 새로운 개념어에 대응하는 造語를 만들지 않고 일본어 번역본에서 채용”해왔음에도 우리의 사유와 결부되어 독자적인 개념의 장을 형성해 나갔을 것이다. 이런 진단에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음차를 해왔건, 한자를 조합하여 고안했건, 서구의 단어를 번역해 온 일본의 개념어들에서 조합을 이루고 있는 한자어들은 “조어들”을 모두 포함하여, 중국이나 일본의 개별어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보편성을 획득한 문자였던 탓에, 전환기 동아시아 전반에서 현재라는 시간의 두께에 한껏 조응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며, 둘째, 한문맥(漢文脈)이나 구문맥(歐文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로 그 순간 자동적으로 상징하게 되듯, **개별 단어는 결국 문맥에 의존해 제 값을 부여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단어와 문장은 의미론의 차원에서나 통사의 차원에서 보나, 서로 상이한 언어학적 단위이며, 당연히 서로 상이한 세계를 넘본다. 낱말에 그 의미를 찾아주고 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문장(문맥), 즉 개별 낱말을 포진하고 있는 다른 낱말들(이 낱말들이 서로 얽혀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사실은, 한 나라의 언어 형성의 문제와 결부되어 중역의 문제 전반을 고찰하고자 때,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하듯 “어떤 한 단어의 의미작용은 그것의 사용 방식에 놓여있는 것”이며, 바로 이 “의미작용은 단어가 우리 언어활동 속에 육화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알게 되는 것”¹⁰⁾일 뿐이라면, **기호에 제 값을 부여해주는 것은 바로 기호가 처한 맥락(contexte)이며, 개념 역시 실체를 갖는 게 아니라,**

10) “Une signification d'un mot est un mode de son utilisation. En effet cette signification est ce que nous apprenons au moment où le mot est incorporé dans notre langage(L. Wittgenstein 42).

잠시 고정되었다가 이내 미끄러지며 인식론적 투쟁의 자장에 놓이고 만다는 점에서는 오로지 개념화(conceptualisation)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¹¹⁾ 이처럼 개념어가 오로지 맥락 속에서 그 가치가 결정될 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말로 재현되는 바로 그 순간, 일본어의 맥락에서 벗어나 제 가치를 우리말의 맥락에서 찾아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던 “造語를 만들지 않고 일본어 번역본에서 채용”한 번역어들인 것이다.

3. 중역은 무엇을 남기고자 했으며, 무엇을 남겼는가?

장르의 탄생과 번역의 밀접한 관계를 파고들어 전개된 논의나 그 관점도 역시나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런데 중역이 문제로 개입되어버리면, 번역이라고 해 두었을 때보다 훨씬 민감한 반응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그만 혼선이 빚어지고 만다. 글을 매듭짓기 전에 잠시 살펴볼 내용은, 번역이라는 단어를 중역으로 바꾸어 놓거나 그 반대의 경우 공히 통용될, 장르의 분화(변모)와 중역의 관계에 관한 통념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번역의 방법론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문학사적 관점에서 중역의 가치를 발굴해내고자 할 경우에만 유용한 듯해도, 장르와 번역의 불가분성이라는 주제는 전통 계승 전반의 문제와 맞물리게 되면, 보다 치열하고, 또한 저열한 양상을 보여 왔다. 알다시피, 논쟁은 이미 타올랐고, 논의는 따라서 낡은 감이 있으며, 전개 양상도 훤히 알려져 있다. 산문시형과 자유시형이 사설잡거나 가사의 전통적 맥락을 계승한 산문이라고 주장하는 확고한 입장의 바로 옆에, 번역과 중역을 통해 도모된 장르 교환의 입장을 환기하며 텍스트의 교환을 비교하지는 관점들이 버둥거리며 팽팽

11) Deleuze, Giles, Guattari, Félix. *Qu'est-ce que la philosophie ?*.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91.

히 맞서고 있던 저 형국은 오늘날이라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니, 전통과의 연속성이나 그 맥락의 계승을 주장하는 기존의 관점¹²⁾은 필연적으로 번역과 중역을 부정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김억의 중역과 중역의 원본으로 알려진 나가이 가후(永井荷風)의 일역본, 그것의 원본인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샤를 게랭(Charles Guérin)의 작품을 차례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그나마 잇는가엎는가(샬르, 깨란)

비록 빗기어나는 反響은엎다하여도
 物件마다 딸으는그림자야 엎스랴.
 밤하늘의별빛은 샘물에서 빛나며,
 가난한이도 남의덕을 입지안는가.
 애닦은 笛聲엔 土墻의反響이 있고,
 小鳥의노래엔 小鳥가떨어울으며,
 갈넙은갈넙과 마츠처흔들니건만,
 憂愁가득한 내기슴의부르짓증엔,
 빗기여 울어줄 反響의맘이나마
 아 그것이나마 잇는가엎는가.

ありやしや

シャルル, ゲラン

永井荷風 訳

12) 조동일, 오세영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안자산, 백철, 임화, 조연현, 조윤제, 김윤식, 김현 등, 한국 근현대 문학사 전반에서 번역과 중역을 인식한 방법과 그 양상에 관해서는, 줄고, 「중역(重譯)의 인식론 - 그 모든 중역들의 중역과 근대 한국어」(앞의 글)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よし反響のきかれずとも、物には凡て随ふ影あり。
 夜来れば泉は星の鏡となり、
 貧しきものも人の恵に逢ひぬべし。
 澄みて悲しき笛の音に土墻は立ちて反響を伝へ、
 歌ふ小鳥は小鳥をさそひて歌はしめ、
 蘆の葉は蘆の葉にゆすれて打顫ふ。
 憂ひは深きわが胸の叫びに答へん人心、
 ああ、そはありやなしや。 13)

LIII

Tout être à son reflet ou son écho. Le soir,
 La source offre à l'étoile un fidèle miroir;
 Le pauvre trouve un coeur qui l'accueille, la flûte
 Un mur où son air triste et pure se répercute;
 L'oiseau qui chante appelle et fait chanter l'oiseau,
 Et le roseau gémit froissé par le roseau :
 Rencontrerai-je un jour une âme qui réponde
 Au cri multiplié de ma douleur profonde?¹⁴⁾

13) 나가이 가후의 번역을 한국어로 다시 옮겨 놓은 것이다.

있는지 없는지

샤를 게랭(나가이 가후 역)

혹 반향은 들리지 않는다 해도, 만물에는 모두 그를 좇는 그림자 있어라.
 밤이 오면 샘은 별의 거울이 되고,
 가난한 자들도 다른 이의 은혜를 받을 지어라.
 맑고 슬픈 피리소리에 토담은 일어서 반향을 전하고,
 노래하는 작은 새는 작은 새를 피어내어 노래하게 하고,
 갈대 앞은 갈대 앞에 흔들려 부딪기며 떴다네,
 근심 깊은 나의 가슴 속 외침에 답하려는 누군가의 마음,
 아아,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14) Charles Guérin, *Le Semeur de cendres*, Paris: Société du Mercure de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제목을 가져다 붙인 것에서부터, 프랑스어 통사의 구조를 응용하고 비틀어 놓았다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아니 주관적으로 시어를 고안하여 반영한 저 양상을 살펴보다도, 일본어 번역 역시 ‘창작’에 가깝다고 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영어 번역본을 참조하거나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김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역의 대상이 되었던 일본어 번역본이 저본으로 삼은 — 프랑스 소설이나 프랑스 사상서의 경우 거개가 영어 축약본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중역 대상이었던 영어본의 정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어 원본 - 영어 번역본(축약본) - 일본어 번역(번역가의 주관에 개입되어 창작에 가까운) - 한국어 번역(한 차례 더 변형시켜놓은)을 거치는 중역의 과정 전반이 텍스트의 왜곡이나 차용의 경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번역과 번역가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환경, 문학장의 특성과 더불어 결정되기 마련 ‘번역지평’(horizon traductif)을 가늠해 볼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런데 여기에 일단 중역이라는 딱지가 붙기 시작하면(확인되고 나면), 제반의 연구는 기이하게도 텍스트의 변용이나 재배치의 양상에 몰입하기 보다는, 중역과 맞닿아 으레 작동해온 통념과 기존의 판단을 재가동하는 수준에 머물고 만다. “특히 岸曙의 창작시에서는 볼 수 없는 日本式漢語 “反響·土牆·小鳥” 等を 그대로 使用한데에도 問題點이 있다”(오영진 16)는 지적은, 그대로 사용했다며 “문제점”을 염려한 이 세 단어가 이후 어떻게 우리말의 어휘 안으로 포섭되었으며, 안서 이후의 시인들이 새로운 이 어휘를 차후에 어떻게 수용해나갔는지에(배제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도통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저 중역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살림을 받을 제 권리를 박탈당하고 만다. 그러나 안서가 그대로 베꼈다는

France, 1901 (2e éd.)의 원문.

논리조차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대로 차용해왔다는 평가도 옳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안서의 번역을 높이 평가하거나 폄하하기 이전에, 안서의 번역본이 일본어 번역에서 무언가를 뒤틀고 재배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중역이 풀어놓은 주관적인 쓰기의 실천을 헤아리는 행위와 그리 다른 것만은 아니다. 우선 기존의 팔행시에서 두 행을 늘려 총 십행으로 구성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것은 중역 논의의 패러독스, 즉 변화를 긍정하면, 그대로 베꼈다는 논리에 금이 가게 되고, 변화를 부정하자니 선연히 그 차이가 드러나고 마는 논리적 모순의 순환 과정일 것이다. 행을 두 개 더 늘려 배치한 까닭은 일면 안서의 번역관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수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정비되었는데, 매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면을 지적해 두는 일이 따라서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왜곡이나 허무맹랑한 조작이 아니라, 그간 안서가 주장해온 ‘창조역’을 이해할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呼吸과 잘 調和된”(김안서 1, 13) ‘창조역’을 주장했던 안서의 번역은 기실 정형율을 제 번역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태반이었으며, 그의 한시 번역도 거개는 **정형율의 틀을 보존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행한 번역**, 즉 정해진 틀 안에 맞추어 넣기 위한 조작과 개입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때, 안서에게 중역은 오히려 원문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 시론(詩論)을 실험하고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자 절차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문학성(시에 관한 사유)을 실험해나갈 기회는 『태서문예신보』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시의 혁신운동의 계기와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번역(중역)이 시의 변화에 개입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다음은 최남선과 더불어, 중역 행위를 고백한 바 있는 홍명희의 말이다.

이散文詩는 波蘭文士 안도레에, 네모에우스키이氏가 古國山河를

바라보고 慷慨한 懷抱를 이기지 못하여 지은것이라.

年前에 日人長谷川二葉亨氏가 波蘭사람 빌스츠키이氏의 付托을 맞아 日本志士에게 紹介코자 翻譯한것이라.

長谷川氏의 鍊熟한 붓으로도 原文 妙한 맛을 다 傳지 못하여 마음에 맞지 못함으로 未定稿로 發表한것이라. 나는 이것을 愛讀한지 數年이되얏으나 지금도 으면 心臟이 자진맛치질하듯 쉼노란것은 더 하면더하지 들하지는 아니하니 무삼일인지?

諸君中에 이散文詩를(大意라도) 나는 重譯에서 벗어나시난 분이 계시면 나의 뜻은 達하였다하리라(홍명희 42).

가인의 위 지적에는 산문시가 되었건, 자유시가 되었건, 새로운 문학 형식이 단일한 기원(origine)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언어-문학-에크리튀르의 **횡단 과정에서 창출된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가인이 ‘중역’을 통해 선보인 산문시는, 가인이 사용한 “散文詩”라는 용어가 당시 최초의 표현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 행위,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중역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서 행한 바로 이 행위 이후, 한국 근대시에 ‘산문시’라는 사유가 당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장만호의 지적이다.

가인의 산문시 소개 이후, 산문시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몇 년이 지난 후 『학지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몽몽(夢夢)은 1914년 12월 꼬로렌코의 「奇花」를, 1915년 2월엔 투르게네프의 「乞食」을 번역한다. 이후 진학문, 안서 등이 『청춘』, 『태서문예신보』에 투르게네프의 산문시들을 소개하고, 뒤이어 『창조』, 『백조』 등의 잡지에도 산문시의 번역이 계속되었다(장만호 251-252).

‘산문도 시가 될 수 있다는 사유’, ‘산문과 운문 사이의 이분법에 대한 회의’, ‘시를 형식의 문제에서 벗어나 시적 상태나 시적인 것을 추구하려

는 경향으로 인식하려는 시도' 등이 죄다 번역을 통해 촉발되었다고 말하면 과장이 없지 않을 것이나, 번역, 아니 중역이 이런 물음을 도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만 부인할 수 없다. 산문시라는 낯선 장르의 도래에 관해, 그 성격과 특징에 대해, 중역은 이미 많은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 동기와 효과를 설명해줄 훌륭한 출발선인 것이다. 주요한의 「눈(雪)」이나 「불노리」 역시 번역(중역)과 연관되어 있지만¹⁵⁾, 앞서 시도된 최학송, 이광수, 진학문, 김안서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번역된 외국 산문시의 번역과 산문시의 창작 시도는 문학 장르가 탄생하는 그 고비마다 혼종이라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알려준다. 프랑스 역시 번역과 중역을 통해 당도한 산물이 산문시였다는 점에서, 장르의 도래와 연관되어 있는 저 상황은 동일하다고 해야 한다.

예컨대 19세기 중반 산문시(poème en prose)라는 새로운 문학 형식을 알로이지우스 베르트랑(Aloysius Bertrand)이 선보이고, 보들레르가 본격적으로 실험해나간 저 이면에는 프랑스 자국 내의 외국문학의 번역 경험이 자리한다. 1760년 출간된 제임스 맥퍼슨(James Macpherson)의 작품 『오시안 Ossian』¹⁶⁾의 프랑스어 번역에 관해, 중역과 연관되어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원문이 정형시로 구성되었다는 점, 둘째, 산문의 형태로 선보인 프랑스어 번역본이 성공을 거두자, 프랑스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한 중역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 셋째, 이 과정에서 산문과 운문의 이분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비판이 이어졌으며, 차후 산문시나 시적 산문(prose poétique)을 시도하게 된 커다란 모티브가 바로 여기서 형성되었다는 점. 이러한 현상은 산문과는 동떨어

15) 프랑스 상징주의와 일본 상징주의의 비교 연구를 비롯해, 주요한의 산문시와 황석우의 자유시와 일본 근대시의 관계에 관해서는 특히 구인모의 연구를 참조할 것.

16) James Macpherson, *Fragments de la poésie ancienne*, traduction de Diderot, Torgot, Suard, Edition préparée par François Heurtematte, Paris: José Corti, Collection Romantique N° 23, 1990 참조.

진 것으로 여겨진 정형시를 “전기 낭만주의의 감수성을 지닌, 다채롭고 불규칙적이며, 거친 산문”(Hersant 115)으로 번역(중역)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학과 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도 차츰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각운이나 율격이 시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드러내주었다”(Bernard 24)는 지적처럼, 전통 정형시에 대한 비판은 이후 ‘시적 상태’나 ‘시적인 것’을 본격적으로 추구해나갈 프랑스 현대시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발판이 텍스트와 텍스트의 횡단, 즉 중역을 통해 일구어졌다는 점을 부기해놓는다.

이처럼 매 시기 새로운 문학 장르의 탄생은, 흔히 그렇다고 생각해온 것과는 반대로, 그다지 자생적이지 않으며, 혹 자생적이라는 표현의 범주 안에다가 텍스트의 혼용과 횡단 현상도 포함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은 중역과 관련된 연구에서 재차 강조해줄 만한 사안이다. 번역 시도를 통해 촉구된, 정형율로부터의 이탈(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유)은 비단 형식의 붕괴만을 말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프랑스 시단에 새로운 문학적 감수성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문학사 전반에서 어떻게 중역을 평가해야하고, 그 가치를 자리매김해 두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역은 문명의 횡단과정과 근대화 전반과 통째로 맞물려 있는,¹⁷⁾

17) “12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유럽에선 고대 학문을 아라비아어나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다. 이 방대한 신지식을 집약하고 소화하고 전수하는 기능은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으로 창설된 대학이 하게 됐다. 그런데 이 번역을 담당한 이는 유럽 각지에서 이베리아 반도의 톨레도나 시칠리아 반도의 팔레르모로 모여든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영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번역 작업은 모두 라틴어로 했다. 번역자의 모국어로 번역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대학 교육도 모두 라틴어로 이루어졌다. 라틴어는 범유럽적인 학문 언어였으므로 학문과 사상이 전 유럽 차원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문화적 단위로서 ‘유럽’이라는 관념을 성립시켰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지배력이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서유럽을 통일했다면, 유럽에 또 다른 차원의 결집력을 부여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그리스어가 아니라 그 번역자들이 사용한 라틴어였다”(야마모토 요시타카 629-630).

다시 말해 중역의 역사는 실로 번역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무게로 제 존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학이 변모를 꾀하고, 제 몸을 부풀려나간 과정은 중역의 관점에서, 아니 번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서양이 너무나도 닮은꼴을 하고 있다. 근대와 내이션을 그 중심에 두고서 역사가 타자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횡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경중에 따라 편차를 보이겠지만, 중역은 결국 필연의 산물이었던 것이며, 에크리튀르의 실천적 장으로써 텍스트의 교환과 새로운 문학 장르를 촉발시키는 계기이자 활동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중역은 번역의 방법론 중 하나, 즉 원본과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가늠하여 접근하면 필연적으로 실패가 노정된 무엇이기도 하다는 측면에 예기치 않은 함정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텍스트가 있었던 것이며, 텍스트가 서로 횡단하면서 실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과정에서 언어의 시원을 그려나갔던 것이지, 어떤 선형적인 번역의 방법이 텍스트에 균질과 특성을 미리 결정하거나,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머금고 또 머금어가며 형성될 언어를 미리 예단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자명한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서 번역의 역사일 것이다.

4. 모멸적 어휘에서 성실성의 표지로

따지고 보면, 번역과 마찬가지로 중역은 중역을 행한 저 맥락과 정치·문화적 가치를 읽어 내지 않고서 접근하면 허무맹랑한 논리로 귀결될 뿐이다. 우회적으로 말해보자. 성서는 중역이기 때문에 읽을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한 것인가? 히브리어에서 한국어까지 당도한 과정에 도대체 몇 차례의 “중계”가 있었는지를 헤아리는 일은 짐작하기조차 어렵지만,

성서는 (사람에 따라) 여전히 읽힌다. 성서를 읽는 것은 “인간 필사자들이 성서 본문들을 베껴 쓰고 변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성서 본문을 ‘기록한’ 이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며, 결국 그 어떤 책이라도 “서로 다른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어만 38-39) 산물로 제 가치를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학 연구는 이데올로기의 관철이나 휴머니즘의 고양, 전통과의 연속성을 성급히 확립하고자 도모하는 의지보다, 차분히 서지를 확립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예증을 구하며, 이에 합당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바로 이 세 가지 작업에 의존한다. 특정시기 우리 문학에서 왕성한 실천력과 필요성을 동반하기도 했던 중역의 저 대상이 되었던 일본어 원문을 확보하여 서로 대조해보는 일은, 삼차 강조하면,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을 분명히 하고, 모든 언어가 그렇듯, 변형과 개입, 고안과 굴절을 꺾어가며 한창 형성되고 있는 중이었을 바로 그 한국어, 오늘날 우리가 구사하는 그런 문장과 통사적으로 유사한, 아니 그 시작을 예고하는 언어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단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역이라고 해도, 그대로 들여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로 들여왔다는 판단, 베끼기에 급급했다는 판단은 사후적으로 소급할 일인 것이다.

지배에 맞서는 방식으로서의 번역, 타자를 결부시키는 동선으로서의 번역, 근대의 실험으로서의 번역이 결국에는 다시 문제가 된다. 이때 번역이 모국어의 잠재력을 들여다본다는 말은 중역이 이질적인 요소들을 내부에서 창출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다. 중역은 번역과 마찬가지로, 과잉을 초래하거나, 문장의 서사와 구조를 뒤틀어대거나, 타자를 내재화시킨다. 내 모국어 외의 언어로 씌어진 어떤 텍스트를 아무리 내 모국어로 그대로 베껴본다고 해도, 한 언어-문화에서 다른 언어-문화로 가로지르는 일이 실현될 때, 이질성을 포괄하지 않고서, 있는 바로 그대로 모방해오는 법은 없다. 중역의 경우, 경유하는 정거장이 한 두

곳 더 늘어남 만큼, 삭제와 첨가, 변형과 굴절, 즉 (번역가의) 주관성의 개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근대와 네이션의 “시간성”과 “운동”에, 그것의 “경계”와 “분할”, “주변부의 투쟁”과 “불평등한 분배”¹⁸⁾에 주목하게 만든 장본인은, 우리에게는, 한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중역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 사정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김현의 말이다.

70년대의 중역은 50년대의 중역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50년대의 중역은 일본어에서 번역한 것이라는 뜻을 띠고 있다. 50년대에 원서라는 말이 갖고 있는 문화적 무게! 70년대의 중역은 그런 의미를 띠고 있지 않다. 70년대의 그것은 어떤 나라 말로 씌어진 것을 다른 나라 말로 읽고 옮긴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50년대의 중역은 모멸적인 어휘이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의 문화적 체험을 무의식중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70년대의 중역은 오히려 성실성의 표지이다. 읽을 수 없었던 것을 읽었다고 하는 뽐냄을 그것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김현, 『문학과 지성』 319-320).

이 “모멸적인 어휘”인 중역에 대한 김현의 생각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대목에 이르면, 보다 복잡하게 표출된다.

새 세대의 세계는 미국과 유럽이었다. 새로운 새것 콤플렉스가, 원산지 직수입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 60년대의 문화적 분위기였다. 새 세대는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는 세대였다. 일본어로 세계 문화—문학에 접한 그 이전 세대들은 중역의 세계에 살았지만, 어느 정도 획일화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일본어를 모르는 새 세대는 미국과 유럽의 문화에 직접 부딪칠 수는 있었지만, 획일화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직역 세대였

18) 파스칼 카사노바의 논문 「세계로서의 문학」 (『오늘의 문예비평』 74, 2009) 참조.

으나, 번역될 수 있는 책들은 한계가 있었다(김현, 『분석과 해석』 241-242).

‘일본어’가 빠져나가 버린 상황, 예컨대, “중역의 세계”에서 그간 담보 되어 왔던 사유의 ‘핵’이 쓸러나가 버려 갑자기 텅 비어버린 공간에, 번역으로 물밀듯 차올라오는 서양 텍스트들의 물결을 감당해 내야 했던 “직역 세대”의 고충과 현장을 몸소 겪게 된 자가 내보인 이 착잡한 심경은 중역의 패러독스를 고스란히 설명해준다. 원문을 직접 읽고서 번역을 행했으며, (그 말처럼 최초로) 한글로 사유하고, 한글로 글을 쓴, 4,19세대는 그렇다면 중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미국과 유럽의 문화에 직접 부딪칠 수”있었던 그들은 번역을 감당하고 체현하였는가? 아니, 일본어 본을 저본으로 한 중역이 직접 원문을 바탕으로 진행한 번역보다 더 정확하며, 만약 그것이 시라고 가정할 경우, 문장의 저 구성, 시어의 번역, 시의 이해 전반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인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중역은 어떻게 “성실성의 표지”가 될 수 있는가? 모름지기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번역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본을 참조할 수 있다는, 일면 번역학계에서 강조해온 이 평범한 사실은 일본어 중역과 연관되어서는 타부가 되어 오욕을 뒤집어쓰고서, 결코 평범하지 않는 수치로 변하고 만다. 중역이 번역의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참고문헌

- 권두언. 「신문관 단행본 소설과 신문에 운동」. 『최남선 다시 읽기』. 육당연구회 편. 현실문화, 2009.
- 권용선. 「번안과 번역사이 혹은 이야기에서 소설로 가는 길 - 이상협의 『당부원』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5권 1호. (2004): 137-165.
- 권정희. 「식민지 조선의 번역/번안의 위치 - 1910년대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 28권 (2010): 297-320.
- 김남이, 허상복.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과 중역된 자조의 의미」. 『어문연구』 65호 (2010): 239-270.
- 김안서. 「詩形의 音律과 呼吸」. 『태서문예신보』 제14호 (1919): 1-13.
-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0.
- 김재현. 「철학 원전 번역을 통해 본 우리의 근현대」. 『시대와 철학』 15권 no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4): 305-331
- 김 현. 「성찰과 반성」. 『문학과 지성』 여름호 (1979).
- _____. 『분석과 해석 : 주(鵠)와 비(蜚)의 세계에서』. 문학과지성사, 1988.
- 류시현. 「1920년대 전반기 『유물사관 요령기』의 번역·소개 및 수용」. 『역사문제 연구』 24호 (2010): 51-79.
- 마이클 크로닌. 『번역과 정체성』. 김용규, 황혜령 옮김. 도서출판 동인, 2010.
- 바트 어만. 『성경 왜곡의 역사』. 민경식 옮김. 청림출판, 2006.
- 사카이 나오키. 『번역과 주체』. 후지이 타케시 옮김. 이산, 2005.
- 야마모토 요시타카. 『16세기 문화혁명』 남윤호 옮김. 동아시아, 2006.
- 오영진. 「近代翻譯의 重譯是非에 대한 考察 - 金億의 翻譯詩를 中心으로」, 『日語 日文學研究』 제1호 (1979): 229-254.
- 장만호. 「산문시의 형성과 근대 문학 담당층의 산문시 인식」. 『한국시학연구』 제15호 (2006): 239-271.
- 조재룡. 「번역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문학과사회』 봄호 (2010): 364-380.
- _____. 「중역(重譯)의 인식론 - 그 모든 중역들의 중역과 근대 한국어」. 『한국번역 비평학회-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공동 주최 2011년 봄철학술대회 자료집』. 2011.
- _____. 『번역의 유령들』. 문학과지성사, 2011.
- 최남선. 『少年』, 신문관, 제19호, 1910.
- 파스칼 카사노바. 「세계로서의 문학」. 『오늘의 문예비평』 74 (2009): 114-142.
-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략 - 언어, 매체, 식민체제, 근대문학의 상관성」. 『역사비평』 71호 (2005): 356-377.
- 홍명희. 「사랑」. 『少年』 신문관, 제3년 제8권. 1910.
- 황호덕. 「한문맥(漢文脈)의 근대와 순수언어의 꿈 - 한국 근대 개념어 연구의 과제」.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2007): 99-133.
- _____. 『근대 내이션과 표상들』. 소명출판, 2004.

- Barthes, Roland. *Le bruissement de la langue. Essais critiques IV*. Paris: Seuil, 1984.
- Bernard, Suzanne. *Le Poème en prose : de Baudelaire jusqu'à nos jours*. Paris: Nizet, 1959
- Deleuze, Giles, Guattari, Félix. *Qu'est-ce que la philosophie ?*.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91.
- Guérin, Charles. *Le Semeur de cendres*. Paris: Société du Mercure de France, 1901 (2e éd.)
- Hersant, Yves. "Paradoxes d'Ossian." *La Traduction-poésie à Antoine Berman* (sous la direction de Martine Broda). Paris: Universitaires de Strasbourg, 1999.
- Macperson, James. *Fragments de la poésie ancienne*. traduction de Diderot, Torgot, Suard. Edition préparée par François Heurtematte. Paris: José Corti. Collection Romantique N° 23, 1990.
- Wittgenstein, Ludwig. *De la certitude*. traduit de l'allemand par Jacques Fauve. Paris: Gallimard, 1965.

Double-Translation and the Adventure of Modernity:
On Crossing and Linguistic Transformation

CHO, Jaeryong
(Korea University)

Double-translation [the act of translating not from an original but from another translation of an original] resists ordinary penetration through appropriation, homogenization, or heterogenization of the “language-culture” (Henri Meschonnic) and taps the possibility for language to bring novelty. The double-translation of the so-called Enlightenment period in Korea, as well as the literary works born from double-translation, make possible the overthrow of such dichotomies as transplantation *versus* creation and ruler *versus* ruled.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clashes, bendings, and adjustments induced by this process of double-translation, it led to such things as the transformation of literary genres and the design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Ultimately, all the questions surrounding the issue of double-translation force us to acknowledge that Korea’s modern knowledge -- up till now -- has been rooted in colonial subordination, since it all came through double-translation (from the colonizing Japanese). If the result of the simple and mechanical transplantation through double-translation is nothing other than Korea’s modern knowledge, this leads us to say that,

because of this,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language are subordinated to the Japanese translation/assimilation of (Western) modernity. The recognition of double-translation, whether that double-translation process was conscious or not, presents itself as a sensitive issue, for the discussion has always been about being for or against double-translation.

If double-translation is indeed an act of translation, it activates reiteration of the practices of reading-writing, which is also re-reading-re-writing, within the interdetermination of Meschonnic's "language-culture" through diverse means such as hybridity, realignment, overlapping, invention, and creation. In the process, a step was being made, for instance, towards an identification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Double-translation has acted as "mutable mobile" (Michael Cronin), repeatedly adding and withdrawing writings and cultural elements.

Therefore, the question of modernity (literary and scientific) in Korea is the question of double-translation. Breaking away from the context of the primary production of knowledge (from within the West) and its later reception (via Japan) amounts to a language practice that invents its own identity's historicity within (as well as through) alterity. All the diverse categories of "re-writing" can only assume a language practice linked either to separation or crossing. The "re-" of "re-writing" doesn't just mean mere repetition, but implies an interpretation both subjective and secondary, which tells that the practice of re-writing is a product of re-reading, that is, a criticism of the original (because it could do nothing but disclose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There lies the value of all the double-translations attempted by Ch'oe Namson. Through double-translation, he originated the syntactical structure

of modern Korean language, fixed punctuation, and designed a new vocabulary.

Today, the prospects of double-translation are different because the historical situation is different. Double-translation is no more at the source of a complex, but it is instead recognized as the “mark of the translator’s efforts” (Kim Hyun). The fact that translation studies stress the need to consult previous translations in order to enhance one’s own translation tells us that double-translation is no longer a taboo or a mis-translation.

주제어: 중역(double-translation), 횡단(cross), 에크리튀르(écriture),
김억(Kim Ok), 홍명희(Hong Myunghee), 최남선(Ch'oe Namson), 산문시(prose poetry), 자유시(free verse poem),
문학장르의 혼용(mixed literary genres)

논문제출일: 2011. 04. 10

심사완료일: 2011. 05. 01

게재확정일: 2011. 05. 10

www.kci.go.kr